

스마트기기 없는 복지시설 출신 학생들 '어쩌나'

중·고3 오늘 '온라인 개학'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역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이 9일 시작되지만 광주지역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준비가 미흡해 수업을 받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대어 사용해줬다고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여태껏 스마트 기기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주교육청의 경우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요조사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다니는 학생들을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친 수요조사를 거쳐 2232대의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학교별 자체 보유량에 교육부 지원 물량(1891대)을 더해 일선 중학교(547개)와 고교(229개), 초등학교(1087개) 등에 배부했다.

광주교육청은 그러나 2차례의 현장 조사에도, 정작 스마트기기 구입을 부담스러

광주 복지시설 학생 조사 누락 대어 신청 9명 중 3명만 지급 20명 요청 불구 10명 지원도 학교측 "컴퓨터실 와서 들어가" 전 학생 개학 댄 수업 차질 우려

위한 사회복지시설 내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온라인 개학일을 하루 앞둔 8일에도 스마트 기기를 대어받지 못한 복지시설 내 중·고교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광주시 광산구 용진육아원에서 다니는 고교생들의 경우 학교측이 스마트 기기 대어를 신청했지만 '더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받지 못한 상태다. 광주시 동구 영신원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9명도 스마트 기기를 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3명만 지원을 받았다. 나머지 학생들은 개학에 맞춰 학교 컴퓨터실로 등교, 수업을 받도록 했다. 이들은 온라인 개학이 아닌, 정식 개학을 하게 되는 셈

이다. 컴퓨터실 사용이나 화장실·급식 제공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개학을 며칠 남겨둔 초등학교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수업에 맞춰 희망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광주시 남구 '노들담 형제의 집' 시설에서 인근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20명이 스마트 기기 대어를 희망했지만 10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설 측은 나머지 10명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받을 동등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시설 내 컴퓨터 5대가 있지만 학생 10명당 1대 수준"이라며 "내일은 중 3과 고3 학생들만 온라인 개학을 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 학생들이 개학하면 40명이 넘어 어떻게 수업을 받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은 온라인 개학 시기가 촉박한 탓에 스마트 기기를 보급할 것 외에 학교별로 몇 명의 학생들이 희망을 했고 스마트 기기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상 첫 원격수



온라인 수업 시연 중·고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광주 남구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실습실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시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업무가 많아 누락된 것 같다"면서 "교육부에서 200개를 추가로 지원받아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남교육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2만 9560대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어한 것

로 나타났다. 다자녀, 조손가정, 한부모 등 가정은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죽했으면... "꽃구경 오지 마세요" 튜립 100만송이 '썩둑'

신안군, 관광객 차단 교육책

신안군이 튜립축제에 선보이기 위해 정성껏 키운 100만송이 튜립꽃을 썩질라버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축제를 취소했지만 꽃이라도 보려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안 입자도 대광해변 옆 튜립 단지를 물들인 행형색의 튜립꽃을 모조리 질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꽃축제 취소에도 꽃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꽃송이를 절단해버린 것이다.

튜립축제는 입자도 대광해변 백사장(12km) 인근에 100만송이 튜립과 유채

꽃 등으로 튜립 단지를 조성하고 11년째 봄꽃축제를 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던 대표축제였다.

지난해만 다녀간 관광객이 5만명이 넘는 등 신안군이 개최한 단일 축제로는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 8회 세계 튜립대표자회의에서는 세계 튜립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신안군이 WTS(World Tulip Summit)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 꽃송이마저 잘라버리는 '잔인한 조치'를 단행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신안군이 코로나19로 인해 튜립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 정성껏 키운 100만송이 튜립꽃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와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튜립 꽃을 제거하게 됐다"며 "더욱더 알차게 준비해서 내년에 관광객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지역 시민단체, 총선 후보자 대상 탈핵 정책 요구 캠페인

지역 시민단체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상대로 '탈핵' 정책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광주YWCA는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 '탈핵 및 탈핵 후보자 지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YWCA는 캠페인에서 "한빛발전에서 발생한 부실 시공 사례와 각종 사고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히 핵발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핵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 실행해

야 하는 현재의 일"이라며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외면하지 말고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등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YWCA와 환경단체는 광주·전남 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탈핵 관련 정책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무보험 차량 몰다가 무단횡단자 치어 사망사고

법원 "운전자 잘못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무보험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 잘못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 김운선 부장판사는 H화재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75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H

사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1일 밤 무보험 화물차를 운전하다 광주시 북구 동운고가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H사는 B씨와 체결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따라 B씨 유족들에게 합

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을 우선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중복보험금을 제외한 1억75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H사는 운전자 A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A씨에게 숨진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A씨는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 횡단한 B씨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술에 취해 무단 횡단하다 사고로 이어졌고 당시 도로 양측 인도와 차도 사이에 철제방화벽이 설치된 점, 인근에 주거지나 상가가 없어 운전자로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들어 H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해당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음주운전 적발된 날 또 음주운전... 항소심서 4개월 감형 왜?

○...판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같은 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구속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돼 양형 배경에 관심.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광주 서구에 서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4.4km에 이르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같은날 오후 전북 순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20m를 음주운전을 한 혐

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1월 선고된 형량(1년 6개월)보다 4개월 감형한 1년 2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같은 날 두 차례의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 형량보다 4개월 낮춘 형량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815 해방 대출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낮춰주는 815 대출
- 3~4억 이상 55세 이상 서민을 위한 무주택 30년 대출
- 55세 이상 5000만 원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신용대출
- 저금리 대출을 위한 저금리대출 특별 지원
-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
-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문의처: 266-4150, 573-4150, 528-4150, 513-4150, 572-4150, 576-4150